

전남광주, 250만평 반도체산단 승부수… ‘국가 1호’ 유치전

광주군공항 부지 826만㎡ 산단 추진
반도체특별법 시행 국비 길 열려
용수·전력 인프라 전액 지원 가능
산업부 하반기 클러스터 지정 전망
마스터플랜·정주 인프라 구축 착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가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세제·행정·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특히 산업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를 50~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고, 용수·전력 등 반도체 산단 필수 인프라를 전액 국비로 구축할 수도 있다. 산단 건립과 관리 운영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 처리토록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가 1호 클러스터 지정은 올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클러스터 지정 절차는 산업통상부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5일 시 광주청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직접 지정하거나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 지자체 공모 절차로 진행된다면 9월에서 10월 중에는 산업부가 클러스터 지정 공모 공고를 내고 각 지자체로부터 조성 계획서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역균형 발전 원칙이 담겨 있어 현재로서는 전남광주와 충북 청주 등 지자체간 각축전이 치열하다.

실제 전남광주특별시는 행정통합 전부터 반도체 산단 유치 노력과 함께 반도체

특별법 입법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 상반기부터 나선 국가 클러스터 지정 사전 준비 작업은 광주군공항 부지 826만㎡(250만 평) 일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공식화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또한, 특별시는 전문연구기관에 ‘지역 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과 국가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과제’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전남광주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육성 전략, 국가 1호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지정 관련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특별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산업부의 클러스터 지

정 공모가 압박함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부터 착수했다. 지난 5일에는 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첫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클러스터 지정·조성과 핵심 인재 안착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 주거·교통·교육·의료를 아우르는 인프라 확충 전략 수립에도 나섰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앵커기업 제조 팹(Fab)과 소재·부품·장비 등 거대한 반도체 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일로, 최소 13만명에서 20만명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시는 ‘살기 좋은 반도체도시 정주여건 혁신 전담팀(ITF)’를 꾸려 정주 기반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하여, 2027년 세부계획 수립을 거쳐 2030년 정주 기반시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시는 클러스터 지정 시 인프라 예산 지원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만큼, 시는 연구용역과 정주여건 개선 로드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내년도 국비 예산안 반영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건강버스’로 의료공백 해소

진도군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건강버스’ 사업을 운영하며, 주민 중심의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의료와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현재까지 27개 마을에서 597명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사, 만성질환 상담, 건강생활 실천교육, 금연과 절주 상담, 치매와 정신건강 상담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해 주민들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있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봉화군

토양분석 전 항목 ‘매우 우수’

봉화군이 과학적인 토양검정을 기반으로 농가의 합리적인 비료 사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는 분석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한 토양 분석 숙련도 시험에서 토양 유기물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등 8개 전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토양 분석 숙련도 평가는 전국 분석기관의 토양검정 정확성과 정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봉화(경북)=송기섭 기자 gdnws8082@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방산 등 신입생 모집

경상국립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372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전체 모집 인원 4644명의 80.3%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이번 입시부터 국내 첫 우주항공 분야 단과대학을 확대 개편한 우주항공방산대학과 신설 AI대학이 함께 출범해 첫 신입생을 받는다. 우주항공방산대학은 기존 우주항공대학에 기계공학부를 편입해 5개 전공 체제로 확대됐다. 신입생은 글로벌대학30 사업 기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으며 ‘CSA-그랑제콜’을 표방한 3학기제 몰입 교육으로 3년 만에 학사 졸업도 가능하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국립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평가 최고등급

국립부경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자체성과 관리 부문 S등급, 교육혁신 성과 부문 A등급을 받았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세운 혁신 과제와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평가 체계를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 부문으로 이원화해 성과 중심의 재정 배분을 한층 강화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지난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한 APEC 9개 회원국 청년 연구자들이 사천항공우주과학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 APEC 청년 연구자 현장 교류

9개 회원국서 16명 참가
KAI·수산연구소 잇단 방문

경남도는 ‘APEC STEM 청년 연구자 포럼’에 참가한 APEC 9개 회원국 청년 연구자 16명이 지난 14~15일 도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STEM은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ematics)을 통합한 교육 및 직업 분야를 뜻한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인 5명을 비롯해 브루나이 2명, 필리핀 3명, 호주·대만·캐나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국이 각 1명씩 참가했다. 2017년부터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일부터 포항 포스테크(POSTECH)에서 열렸으며 인공지능(AI) 기반 STEM 연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경남=송병호 기자 metrobusan@

이번 포럼에는 한국인 5명을 비롯해 브루나이 2명, 필리핀 3명, 호주·대만·캐나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국이 각 1명씩 참가했다. 2017년부터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방식을 지난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일부터 포항 포스테크(POSTECH)에서 열렸으며 인공지능(AI) 기반 STEM 연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경남=송병호 기자 metrobusan@

경북, 청년과 함께 걷는 ‘독립운동 역사로드’

안동·청송·영양서 1박 2일 진행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광복절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안동·청송·영양 일원에서 전국 청년 30여 명이 참여하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경북 역사로드’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의 독립운동 유적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지역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과 20대 청년 등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세 지역의 독립운동 현장과 관광지를 둘러보고 지역 미식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첫날에는 영양 남자현역사공원에서 여성 계몽운동과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남자현 지사의 삶을 살펴본 뒤 청송 항일의병기념공원을 찾아 청송의진을 비롯한 전국 의병의 항일투쟁을 되새겼다.

안동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을 방문해 한 가문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를 살펴봤다. 둘째 날에는 이옥사문화관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내앞마을을 찾아 경북 독립운동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영양군, 서울광장서 맛·멋 알린다

27일부터 사흘간 고추축제 개최

영양군이 서울광장에서 영양의 농특산물과 전통문화 그리고 관광자원을 한꺼번에 알리는 행사를 개최한다. 8월 2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026 영양고추 H.O.T Festival’이 농산물 판매 중심의 행사를 넘어 영양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장으로 마련되면서 서울 시민들의 지역 인지도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축제 기간 서울광장에서는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농특산물을 생산농가와 지역 농협 및 가공업체를 통해 직접 만날 수 있다. 참여 생산자들이 산지에서 마련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방식으로 운영돼 품질을 확인한 뒤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 공간과 함께 영양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는 홍보관도 운영된다. 조선시대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소개

하는 공간을 비롯해 지역 관광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전시 공간이 마련돼 영양의 자연과 문화적 자원을 서울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장 가운데에는 영양고추를 소재로 한 테마 공간이 들어선다. 시민 참여형 체험과 이벤트도 함께 마련돼 가족방문객과 서울을 찾은 관광객이 행사장을 둘러보며 영양의 특색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영양군은 농특산물 판매와 지역 홍보를 결합해 행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관광을 함께 소개해 영양을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서울 시민들이 행사를 찾은 동안 영양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전주, 호주서 K-소비재 판로 확대

지역 제조 중소기업 8곳 모집

전북 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호주 멜버른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오는 25일까지 ‘2026 전주 K-프리미엄 소비재 호주 무역사절단’에 참여할 전주지역 제조 중소기업 8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류박람회에는 멜버른 쇼그라운드에서 1만㎡ 규모로 열리는 한류·소비재 행사로, 기업 간 B2B 수출 상담과 소비자 대상 B2C 전시관측은 물론 한류 체험과 공연·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무역사절단은 11월 3~9일 호주 멜버

른에 파견되며,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개최하는 ‘2026 멜버른 한류박람회(KBEE 2026)’와 연계해 운영된다. 참여 기업들은 11월 5~6일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6~7일에는 ‘전주 K-소비재 공동 쇼케이스관’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선보인다.

시는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유망 바이어 발굴·매칭과 상담 통역, 상담장임차료, 항공료 일부 등을 지원한다.

또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품목별 호주 현지 규제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행사 이후에도 샘플 발송과 계약 협의, 수출 이행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